

성결대학교 제42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성결대학교 제42회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6월 19일(목) 오전 11시 성결대학교 아일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임 총동문회장에 최종화 목사를 선출하고 모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부회장 이상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유훈주 목사의 기도, 총동문회장 횡성환 목사의 '함께 하는 기쁨'(요일 1:1~4)이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 종회, 성결대학교, 총동문회를 위해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종회장 홍사진 목

사와 성결대 정희석 총장의 축사, 전총동문회장 곽종원 목사의 격려사, 사무총장 이규현 목사의 광고 후 전총동문회장 김용구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2부 회의에서는 신임원 선출과 회부처리가 있었다.

제42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최종화 목사는 "성결대의 든든한 베풀 목 역할을 하는 총동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동문회에서는 성결대학교 후회를 위한 장학기금 2천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회장 노윤식 목사)가 지난 달 24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2,335만 3,000원을 신학대학원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노윤식 목사를 비롯한 후원회 회원, 학교 관계자, 신학대학원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드린 예배는 리건국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규현 목사의 기도 후 '다른세대'라는 제목으로 이재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성결인의 산실인 성결대학교를 통해 예성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시기"라며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노윤식 목사의 인사말과 엄호섭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박경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정희석 총장은 "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지니며 또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불어나 주는 소중한 맡겨졌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는 성결대학교의 모토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원로목사들이 주축이 되어 2022년 4월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매월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기금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장학후원회 측은 "앞으로도 많은 예성의 목회자, 동문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해왔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185-138338-01-756, 성결대)



故 손택구 목사 14주기 추모예배… 세미나도 함께 가져



이하준은 고인에 대한 추모사와 손택수 목사는 회생과 섬김으로 성결의 삶을 사셨고, 후학들에 모범적 스승일 뿐 아니라 천안 땅을 기증하면서 유지재단 설립 기반이 되신 분의 추모와 신학 세미나를 축사했으며, 교단의 영적 귀한 자신인 유성의 신학과 삶을 귀한 것으로 계승하기로 격려하였다.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도 사중복을 소중함을 언급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사중복이 재조명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신학세미나는 '유성 손택구 목사의 구원론'을 주제로 전총회장 김윤석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성결의 삶뿐 아니라 특구와 야구를 좋

성홍교회, 인도네시아 청소년 초청 친양콘서트 개최



충남 부여군 소재 성홍교회(인정분 목사)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공동생활가정인 소망의집 원주민 청소년 21명을 초청해 친양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성홍교회 성도뿐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까지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친양은혜, 주의 사랑에 대해 등을 발표했으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라는 주제의 뮤지컬도 이날 공연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성령의 입장을 친양과 뮤지컬로 한국의 성도들과 나누었으며, 상호간 믿음의 열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로·공로장로회 실행위원, 군안보 현장 견학



교단의 원로 및 공로장로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연천 25사단 상승OP 전방대와 전방부대를 돌아보며, 장병 격려 및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22회기 군안보 현장 견학 및 실행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관악의 앞에서 모인 일행 20여 명은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서 상승OP에 도착한 후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25사단 상승OP군인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수석부회장 정완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고문 박상훈 장로의 기도 후 25사단 군종참모 윤다윗

목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근근무 장병들을 위해, 25사단 국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박상길 장로는 "25사단이 이곳 서부전선을 철통같이 지켜주심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OP대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후 일행은 임진각으로 이동해 DMZ평화공원 관람 등의 일정을 이어나갔다.

성결을 위한 기도운동본부, '제1회 성결을 위한 기도모임'



성결을 위한 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일 종회본부에서 제1회 성결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104회기 종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성결성 회복과 교단의 발전, 나라를 위해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김민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정부기 목사의 기도 후 종회장 홍사진 목사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홍종회장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예성이 사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결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종회장 이제원 원로목사의 복음을 듣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의상 목사의 인도

성결대학교 제42대 총동문회

회장



최종화

실무부회장



이정길

사무총장



이규현

서기



송영만

부서기



박수정

회계



강명숙

부회계



김신호

운영이사장



홍성환

부회장(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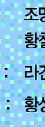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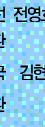



















<img alt="